

이 자료는 9월 18일(금)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월 18일(금) 즉시보도 가능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
Agency for SMEs

보도자료



- 문의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이찬형 실장(042-388-0330) 이현준 책임(042-388-0347)
- 배포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홍찬 실장(042-388-0130), 신이연 연구원(042-388-0223)

TIPA - 엔젤투자협회 기술창업기업 성과확산 협력 MOU 체결 - 기술창업기업 R&D후속지원 강화 및 성과확산 도모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'TIPA')과 사단법인 한국 엔젤투자협회(회장 고영하, 이하 '엔젤투자협회')는 기술창업기업의 R&D 후속지원을 강화하고, 성과확산 도모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.
- TIPA와 엔젤투자협회는 18일(금)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 타운에서 '기술창업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하고, 상호 유기적인 기술창업기업의 성과확산을 지원하는데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.
- "팁스"는 성공 벤처인, 선도 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(엔젤투자·보육 전문회사)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 R&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,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,
 - * 팁스(TIPS,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-up,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)
 - '13년부터 현재('20.8월)까지 총 1,044개 창업팀에 대해 민간 엔젤투자 2,253억원에 매칭하여 R&D 4,464억원,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1,0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, '22년에는 년 500개의 신규 창업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.
 - 외연의 확대와 함께 괄목한 만한 성과창출을 통해 중기부의 대표 초기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하였다.

□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팀스 창업팀은 민간투자 유치, 신규 고용창출, 고급기술인력의 도전적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.

- 팀스 창업팀은 초기 엔젤투자 유치(2,253억원)와 더불어 팀스 선정 후 2조 8,280억원의 민간 후속투자 유치를 통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약 5.6배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,
- 또한, 팀스 과제 기간(R&D기준, 최대 2년) 동안 기업 당 평균 약 14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,
- 팀스 창업팀의 주요 창업자 중, 석·박사 58%, 국내외 대기업 출신 29%, 전문직 11%로 고급기술인력의 도전적 창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뿐만 아니라, 팀스 창업팀 중 약 25%가 해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, 기업공개(IPO) 2개팀, M&A 19개 팀이나 되는 등 팀스 선정 당시 업력이 평균 2년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,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.

□ 그간, 팀스(R&D)에 TIPA-엔젤투자협회로 추진 체계가 분리 운영되어 창성R&D사업 內성과공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,

- 금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, 고급기술 인력의 기술창업 도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하기로 하였다.

□ 업무협약서의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,

- TIPA는 ▲TIPS 수행기업의 사업화성공 지원을 위한 자금융자 연계 ▲수출이행자금 확보 지원 등 수출연계 프로그램 제공 ▲R&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인증 ▲수요처 및 투자처가 있는 기업의 상용화R&D 사업으로의 후속지원을 유도 하고,

- 엔젤투자협회에서는 중소기업 R&D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▲IR역량 강화 교육 ▲투자유치 VC초청 및 네트워킹 등을 추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.
- 이재홍 TIPA 원장은 “COVID-19로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, 잠재력 높은 기술창업기업의 R&D 후속지원, 투자, 판로개척 등 성과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엔젤투자협회와 함께 하는 뜻 깊은 자리”라고 말했다.
- “또한,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측면에서는 창업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 년간의 기업 엑셀레이터 노하우와 투자심사 역량을 보유한 엔젤투자협회와 함께 만들어 갈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”라고 밝혔다.
-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은 “이번 협약은 엔젤협회의 벤처투자연계 네트워크와 TIPA의 R&D지원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”면서 “양 기관의 장점을 융합한 성과확산 협력모델을 구축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.

첨부

관련 사진 2매 (자료제공 : TIPA, 엔젤투자협회)

20.9.18(금) 14:30분 경 추가 배포예정

[사진1] 업무협약식 현장, 2020.09.18.(금) 14시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타운(서울 역삼동 소재)
- 사진 왼쪽부터 TIPA 이재홍 원장, 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

20.9.18(금) 14:30분 경 추가 배포예정

[사진2] 업무협약식 현장, 2020.09.18.(금) 14시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타운(서울 역삼동 소재)
- 사진 왼쪽부터 TIPA 이찬형 실장, 이재홍 원장, 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, 김채광 부회장